

문헌 속 '반파국'은 장수가야

명사특강 '장수가야를 말한다'
3번째 강의 말은 이도화 교수
새로운 문헌 자료 공개
기존 알려진 일본서기 원문 분석
'대가야=반파' 학설 정면 비판



지난 19일 장수군 군민회관에서 열린 명사특강 '장수가야를 말한다' 세번째 강의.

명사특강 '장수가야를 말한다' 3번째 강의 (주제) '장수가야는 반파국이다'를 맡은 한국 전통대학교 이도화 교수는 "문헌 속 반파국은 장수가 맞다"며 새로운 문헌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19일 군민회관에서 열린 명사특강을 맡은 이도화 교수는 '백제 집권국가 형성과정 연구'로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 고대사의 대가이다.

이날 강의에서 이도화 교수는 "일본이 지은 삼국유사에서 소개되는 67야 외에 당대 문헌 어디에도 가야가 연맹체로서 광범위하게 소개된 적은 없다"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 알려진 일본서기의 원문을 분석해 기존 대가야=반파라는 학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대가야 사신 고덴게이(고데んけい)와 반파국 사신 고덴게이(고

でんけい)가 동일인이라 '대가야=반파이다'라는 주장은 기록상 28년의 차이가 있다"며 "다른 기록에서 보면 동일인이어도 여러 사유로 국적이 변경될 예가 있어 설득력이 약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양자공도(526년 무렵, 양나라에 소개된 백제 사신도)에 소개된 백제 속국 반파가 대가야라면 이미 479년 남제에 신하국이 된 대가야를 백제의 속국이라 표현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이도화 교수는 "일본서기 원문기록을 확인해 보면 한문 표기로 백제(百濟)는 부여(夫余)로도 표기가 되지만 일본어로는 쿠타라(クツラ)로만, 고구려(高麗)는 박(拍)으로도 표현 되지만 일본어로는 코마(コマ)로만 표기되는데 반해 반파(伴波)는 하해(ハハ)로, 가라(加羅·가야의 혼용어)는 카라(カラ)로 표기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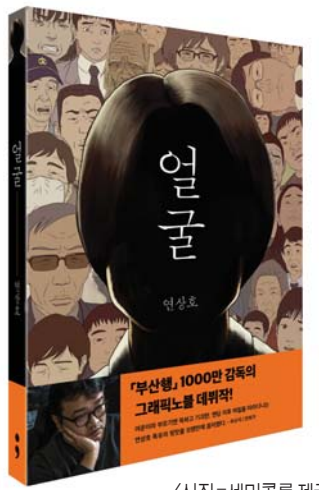
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대가야 = 반파는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장수군의 옛 지명인 백해군(삼국시대 장수군의 지명)의 지명이 반파국의 일본표기명인 하해(ハハ)의 탁음 파해(ハハ)와 비슷하며 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학적 물증인 봉수 유적과 다양한 가야유적이 확인되는 장수군이 당대 기록에서 반파국을 말하고 있다"면서 "신속히 '반파국'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파라는 뜻은 "짜하여 기대서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합치면 온전해 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주변국과 결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국호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신장성씨록 등에 소개된 반파국은 부유하며 신라를 필박하고 기문국을 지키기 위해 백제와 대립한 강국으로 최근에 제기된 논리적으로 허술한 자료에 흔들리지 말고 반파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삼국유사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을 탈피해 장수지역의 고대사를 바라본다면 그 가치와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주민 및 국민들의 '장수가야 즉 반파국'의 정립을 위해 기존학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낼 것"을 약속했다.



(사진=세미콜론 제공)

'부산행' 연상호 그래픽노블 '얼굴', 전자책으로 출간

영화 '부산행', '반도'로 유명한 연상호 감독의 그래픽노블 데뷔작 '얼굴'이 전자책으로 출간됐다.

민음사 출판그룹의 시각문화 전문 브랜드 세미콜론은 20일 "연 감독의 필모그래피 속 유일한 그래픽노블인 '얼굴'이 2018년 종이책에 이어 이달 전자책으로 출간됐다"고 밝혔다.

'얼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소외당하고 잊혀져 간 한 여인의 일생을 소재로 한다.

연 감독은 애니메이션 '네지의 왕', '사이비' 등을 통해 한국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보인 바 있다. 영화 '부산행'에서는 애니메이션에서 그려왔던 자신의 상상력을 영상으로 표현해냈다.

이후에도 영화 '열혈'과 '반도', 드라마 '방법', 웹툰 '지옥' 등 장르와 소재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세미콜론 측은 "가장 개인적이고 작가주의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 주는 '얼굴'을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

전북문화관광재단,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내달 11일까지 홈페이지·SNS 등서 방문자 대상... 상품 증정 이벤트도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단은 9월 11일까지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홈페이지 및 SNS 방문주기, 서비스 이용, 건의 사항 등 고객의 이용 현황 조사를 통해 온라인 매체 운영에 대한 진단과 점검, 그리고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 차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임진아 홍보팀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며, "재단과 고객의 원활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와 홍보팀(063-230-747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통음악 저변확대 '맞손'

전북도립국악원·광주국악방송, 상호 협약 체결

전북도립국악원과 광주국악방송은 20일 전통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악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방송, 상호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콘텐츠의 제공 및 활용, 공연 및 전시 등에 대한 홍보 및 방송 등 국악 및 전통음악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립국악원 임기남 원장은 "국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시대의 변화속에서 우리 것을 오히려 지켜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 내는 역할과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를 우리국악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재영 광주국악방송 국장은 "전북도립



국악원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방송을 통해 좀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싶다"며 "국악방송이 같이 홍보하고 협업해서 관련 공연사업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국악방송은 대한민국 전통 및 창작 국악보급교육과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2014년 3월 26일에 개국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재단법인으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일부 지역의 국악 전문 공영 라디오 방송국이다.

/뉴스

익산 예술의전당, 내달 15일까지 '동서양 근현대 미인도' 기획전

익산시가 동서양 근현대 시대에 다양한 화법으로 그려진 미인의 모습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시회를 마련한다.

예술의전당은 9월 15일까지 '자신 妻人 - 동서양의 근현대 미인도' 기획전시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2020 전시공급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코리아나 미술관과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이 공동 주최한 전시이다.

코리아나 미술관의 주요 소장품인 다양한 '미인도'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화법으로 그려진 '미인'의 모습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익산=장원형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